

# 성인문해교육을 생활문해 · 문화문해 · 디지털문해로 확대

- 전주시는 이미 성인문해교육을 평생학습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전주시평생학습관에 따르면 전주시는 2006년부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, 2025년 기준 16개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문해교육기관 강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이제는 성인문해교육을 한글 읽기·쓰기 중심의 기초문해에서 더 넓혀, 시민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문해, 문화문해, 디지털문해, 금융문해, 건강문해, 법률문해, 안전문해로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.
-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에서도 문해교육을 단순히 문자 해득에만 한정하지 않고,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과 사회적·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 또한 시장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전문인력 양성, 유관기관 공동추진,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따라서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은 이제 “글자를 읽는 교육”을 넘어, 생활을 읽고, 사회를 이해하고, 디지털 환경에 참여하며, 문화와 권리를 누리는 교육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.

## □ 생활문해교육 확대

- 성인문해교육을 시민의 실제 생활 문제 해결과 연결해 주십시오.
-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활문해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
  - 병원 예약하기, 진료 안내문 읽기, 약 복용 안내 이해하기
  - 은행 업무, 통장·카드·이체·ATM 사용법 익히기
  - 임대차계약서, 관리비 고지서, 공과금 고지서 이해하기
  - 전세사기, 보이스피싱, 스미싱 예방 교육
  - 복지서비스, 정부24, 전주시 온라인 민원 신청 방법
  - 버스·기차 예매, 교통카드, 주차·교통안전 정보 이해하기
  - 재난문자, 폭염·한파·화재·감염병 안내문 이해하기
- 이러한 생활문해는 어르신, 저학력 성인, 이주민, 장애인,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생활정보 접근이 어려운 모든 시민에게 필요합니다.

## □ 디지털문해교육 확대

- 교육부는 2025년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, 우리나라 성인 중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

이 약 350만 명, 전체 성인의 8.2%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성인 대상 AI·디지털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
- 전주시도 이에 맞춰 성인문해교육 안에 디지털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.
- 다음과 같은 교육을 제안합니다.
  - 스마트폰 기본 사용, 문자·카카오톡·사진·영상 활용
  - 키오스크 주문, 무인민원발급기, 병원·은행 접수기 사용
  - 정부24, 복지로, 전주시 누리집, 모바일 신분증 활용
  - 보이스피싱·스미싱·개인정보 유출 예방
  - 온라인 예약, 모바일 결제, 배달·교통 앱 사용법
  - 생성형 AI 기초 활용, AI 검색, AI 글쓰기, AI 사기 예방
  - 디지털 기기 사용 예절과 온라인 시민참여 방법
- 디지털문해는 단순한 기기 사용법이 아니라, 시민이 공공서비스와 사회생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 권리 교육입니다.

## □ 문화문해교육 신설

- 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. 그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능력도 시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 문화시설이 있어도 정보를 찾기 어렵거나, 공연·전시 예매가 어렵거나, 문화예술 용어가 낯설어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.
- 따라서 성인문해교육을 문화문해교육으로 확장해 주십시오.
- 문화문해교육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  - 공연·전시·영화·도서관 프로그램 정보 찾기
  - 전주시 문화시설 이용법, 예매 방법, 할인제도 안내
  - 전주한옥마을, 전주국제영화제, 지역축제 이해와 참여
  - 미술관·박물관·도서관 이용법
  - 문화예술 감상법, 작품 해설 읽기, 지역문화 이야기
  - 시민이 직접 쓰는 마을기록, 생애사 쓰기, 구술기록 교육
  - 문화예술 동아리와 평생학습 동아리 연계
- 문화문해는 시민이 문화예술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, 전주의 문화를 이해하고 기록하고 참여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.

## □ 금융·건강·법률·안전문해교육 도입

- 문해교육은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교육이기도 합니다. 글자를 읽을 수 있어도 금융상품, 계약서, 병원 안내문, 법률 문서, 재난 안내를 이해하지

못하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
○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에 다음 영역을 포함해 주십시오.

○ **금융문해**

통장 관리, 이체, 카드 사용, 대출 주의사항, 금융사기 예방, 신용관리, 노후 재무관리

○ **건강문해**

건강검진 안내문 이해, 약 복용법, 병원 예약, 만성질환 관리, 정신건강 정보, 응급상황 대처

○ **법률문해**

임대차계약, 근로계약, 상속·가족관계, 소비자 피해, 전세사기 예방, 무료 법률상담 이용법

○ **안전문해**

재난문자 이해, 화재·교통·생활안전, 폭염·한파 대응, 감염병 정보, 응급신고 요령

○ 이런 교육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예방형 복지이자 생활밀착형 평생교육입니다.

## □ 운영 방식 제안

○ 성인문해교육 확대가 실제로 시민에게 닿기 위해서는 교육 장소와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.

○ 첫째, 전주시평생학습관 중심 운영을 유지하되, 각 동 평생학습센터, 주민센터, 복지관, 작은도서관, 노인복지관, 장애인복지시설, 이주민 지원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확대해 주십시오.

○ 둘째, 기존 문해교육기관에는 기초 한글교육을 계속 지원하되, 생활문해·문화문해·디지털문해 과정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비와 교재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십시오.

○ 셋째, 문해교육 강사에게 디지털문해, 금융문해, 건강문해, 문화문해 관련 보수교육을 제공해 주십시오. 전주시 조례에도 문해교육 교사·강사 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.

○ 넷째, 지역 기관과 협력해 주십시오. 예를 들어 보건소는 건강문해, 경찰·금융기관은 금융사기 예방, 법률구조기관은 법률문해, 문화재단·도서관·영화제조직위는 문화문해, 대학과 청년단체는 디지털문해를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○ 다섯째, 쉬운 글과 그림, 큰 글씨, 영상, 실습 중심 교재를 개발해 주십시오. 특히 어르신과 학습 취약계층은 강의식 교육보다 직접 해보는 반복 실습이

중요합니다.

## □ 기대 효과

- 성인문해교육을 생활문해·문화문해·디지털문해로 확대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- 첫째, 시민이 병원, 은행, 행정, 교통,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이용하는 힘이 커 집니다.
- 둘째, 보이스피싱, 전세사기, 금융사기, 디지털 사기 등 생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셋째, 디지털 취약계층이 공공서비스와 온라인 시민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.
- 넷째, 전주의 문화예술 자원을 시민 누구나 더 쉽게 누리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다섯째, 성인문해교육이 단순 보충교육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, 자립, 사회참여를 높이는 평생교육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

## □ 마무리 제언

- 전주시가 추진해 온 성인문해교육은 매우 중요한 평생교육 자산입니다. 이제 민선 9기 전주시에서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, “읽고 쓰는 문해”에서 “생활을 해결하는 문해”, “문화를 누리는 문해”, “디지털 사회에 참여하는 문해”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주시가 성인문해교육을 생활문해·문화문해·디지털문해 중심으로 확장한다면, 시민 누구나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더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
- 전주시 성인문해교육 확대를 민선 9기 평생학습 핵심 과제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